

2019 동계 이화봉사단

해외교육봉사

(Ewha Friends in Vietnam)

베트남 다낭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봉사팀



2020. 1

구*연

10월에 2019 겨울 이화봉사단 단원으로 선발되어 약 3개월간 준비를 하고, 이제는 거의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되었다. 준비를 하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막상 희망 마을 고아원에 도착해보니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열심히 수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와 보니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는다.

특히, 나의 마음가짐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다른 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해외 봉사에 임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졌다. 어쩌면 해외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스스로의 로망 때문에, 나의 추억 만들기에 현지 아이들을 동원한 건 아닌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 또, 수업을 준비하면서 한번도 아이들에게 어떤 수업이 가장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꽃 심기와 청소를 하던 날 다른 대학교에서도 교육 봉사를 왔는데, 그 분들도 우리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늘 새로운 사람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반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점이 많이 후회가 되었다. 처음 이 해외 봉사에 지원할 때의 각오와 마음은 시간이 지나고, 학과 공부와 시험, 과제에 치이면서 피곤함과 귀찮음으로 변질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수업을 해주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학년 아이들과는 정말 소통이 어렵고 수업의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림 그리기로 많은 활동을 대체했는데, 이 또한 우리 편하자고, 그런 건 아니었던 가 하고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었다.

여러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봉사였지만 그 만큼 깨달은 점도 많았던 것 같다. 봉사를 하면서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위생 상태와 놀이 시설을 비롯한 학교 시설 등 다양한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특히, 부모님이 충분히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는데 고아원의 아이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얼마 보지 않은 우리에게 와서 안기는 아이들을 보며 안쓰럽기도 하며, 결국 우리도 떠날 건데 아이들에게 도리어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여러 가지로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또 21살의 나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준 이화 봉사단과 함께 열심히 봉사를 준비한 단원들에게 너무 고맷다. 이번 봉사가 나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듯,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김*연

이화봉사단 모집 공지를 처음 보았을 때에는 그저 좋은 경험,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았다. 전에 했던 봉사활동이 다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서, 대학생 때 학교에서 보내주는 해외 한 번쯤은 가봐야 한다 길래, 한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업무량을 학기와 병행해야 했고, 수없이 진행되는 피드백과 교안 수정에 지쳐 가끔은 후회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준비 기간 동안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일을 해 나가며 아무것도 없던 도화지에 차츰 밑그림이 그려졌고, 어느새 출국 날이 다가와있었다.

수업 첫 날 마주한 아이들은 낯을 가리는 것 같았다. 나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청각장애엔 익숙지 않아 조용하게 진행되는 수업이 어색했다. 현지 아이들의 수준과 상황은 우리가 한국에서 예상한 것과 상당히 달랐고, 또 다시 수정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미 세 달 전부터 반복하던 일을 현지에서까지 해야 한다니 시작도 전에 지치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날부터는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아이들을 익힌 뒤에는 변수가 생겨도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마지막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다.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많이 들어 눈물이 나려는데, 아이들은 이 상황이 익숙한 듯 덤덤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이 더욱 슬펐다. 그리고 다같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난 뒤, 한 아이가 계속 나에게 와서 안기며 인사를 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크게 눈길 주지 않았던 아이였는데 내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고 따르는 것에 놀랐고, 동시에 고맙고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이번 봉사를 통해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고, 잊지 못할 추억과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 그러나 활동 이후 한 단원의 말이 큰 충격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추억이 아닐 것 같다는 말이었다. 실제로 희망마을고아원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굉장히 짧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준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있는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 나라의 단체들이 고아원을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동안 수많은 단체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이 아이들에게엔 우리 또한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하나 일 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음 기수를 위한 이번 활동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현지 수준과 상황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활동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 더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생각이 깊고 마음 따뜻한 단원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구나 반성하게 되었다.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여러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다들 진정한 봉사란 무엇인지, 이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대단한 단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 활동을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김*주

처음에 베트남 해외 이화봉사단에 지원했던 이유는 교사가 되고 싶은 사범대학 학생으로서 다양한 환경의 학생들을 만나보고 싶었고, 이제껏 제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에서는 열흘간의 봉사활동을 돌아보면서 아이들과 그리고 봉사단원들과 함께해서 즐거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저자신을 돌아켜봤을 때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을 느껴 아쉽고 후회되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준비 기간 초반에는 기획팀으로서 제가 수업을 직접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또 제가 제안한 수업에 직접 주교사로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설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구체적으로 교안을 작성하고 수업자료들을 준비할수록 학생들에게 이런 수업이 도움이 될지,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걱정들이 커지면서 점점 확신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 기간 후반쯤에는 수업에 대해 더 고민해서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아이들도 이 정도는 따라와주지 않을까?' 하는 합리화에 머물렀던 것 같아 반성하게 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베트남에서 봉사활동 중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로 교안이 많이 수정되면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과는 무색하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만 몰두했던 것 같아 후회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일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를 항상 고민하고 도와주는 단원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지치고 합리화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수업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잘 따라와주는 아이들 덕분에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유동적이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언어도 다르고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만난다고 해서 어떻게 소통하고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막상 아이들과 대화하기 위해 손짓, 몸짓, 얼굴 표정 등을 이용해가며 조금이라도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순간들과 그것들이 통했던 순간들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고마워'라는 수화와 함께 자신이 받은 간식을 나눠주고 나를 안아주었던 아이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기억해준 것도 정말 고마웠고, 짧은 기간이었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쉬워하면서도 서로 주고받은 감정들은 헛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 보람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저의 부족한 점도 알게 되고, 감사한 마음도 많이 느꼈던 소중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전공의 단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각자 맡은 것들에 대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단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들으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항상 서로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단원들이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고마웠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온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이번에 느꼈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더 잘 해내고 싶습니다.

 김*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봉사과 거리가 멀었던 나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다양한 봉사 활동에 도전해보았다. 사람들이 왜 봉사를 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고, 그렇게 얻은 경험으로 이화봉사단에도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뜻깊은 경험도 할 수 있었지만, 함께 봉사한 단원들의 생각, 자세를 보면서 반성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갑작스럽게 추가된 문화교류, 공강 날 매 주 있는 아침 8시 회의, 계속되는 피드백, 교육을 받았지만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탓에 교안을 아무리 수정해도 걱정이 가득했고 문화교류도 준비해야 되어서 시간이 부족했다.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까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았다. 그렇게 베트남을 도착해서 힘들었던 첫 수업을 끝냈지만, 우리가 계획한 것들 중 제대로 진행되었던 것이 별로 없었다. 호텔에서 1시간 넘게 회의를 했던 것 같다. 단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 다행히 아이들도 마음을 열었는지 수업을 잘 따라와 줬고, 우리 단원들 또한 척척 진행해 나가고 여러 상황들에도 잘 대처해나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잘 보였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준비된 것도,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봉사 단원들 다 같이 마지막 날에 교실 대청소를 하기로 했다. 아이들이 도와주려고 하자 청소도구도 뺐고, 쉬라고 타일러도 보고, 혼내도 봤지만 곳곳하게 도와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고마웠다. 교실 곳곳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을 봤을 때에는 속상하였지만, 대청소 후에 한결 깔끔해진 교실을 보면서 마음이 그나마 편해졌다. 그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다.

아직도 희망마을 고아원 앞에 버스에서 내리면 달려와 반기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우리 단원 한 명 한 명이 느낀 부족한 점을 스스로 고치고, 발전된 모습으로 다 같이 희망마을 고아원에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것이 정말 아쉽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단원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서 '봉사'에 대한 여러 생각도 접해볼 수 있었고, 단원들이 회의에 참여하는 자세, 수업하는 모습을 보며 짧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나에게 정말 많은 가르침을 준 봉사단원들과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김*한

2019 여름 국내 이화봉사단을 다녀온 경험이 너무 좋아 겨울 해외봉사단을 신청하게 되었다. 몇 번의 탈락 이후 해외봉사단에 선발되었을 때 너무 행복했다. 현지 봉사활동 파견 전에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설렘보다는 다양한 이화인을 만나 교류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컸다. 그러나 봉사활동 이후 아이들과의 선물 같은 시간은 나에게 큰 감동과 변화를 주었다. 해외 이화봉사단 선발 이후, 10월 달부터 3달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끊임없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힘들 때도 많았다. 나에게서 첫 해외봉사이자 첫 장애아동 봉사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특히, 주어진 사전 정보가 많지 않았기에 단원들과 끊임없는 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파견 일주일전까지 세안을 수정하기도 했다. 그래도 리더 지현언니가 잘 이끌어주고, 다른 단원들이 서로 복 돌아준 덕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봉사 준비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특히, 문화교류 활동은 새롭게 추가되어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모두 착실하게 참여해주고 즐겁게 웃으며 활동해준 덕에 나도 에너지를 얻고 행복하게 연습할 수 있었던 거 같다.

드디어 3달간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2020년 1월 5일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숙소로 도착하여 다음날 프로그램 회의를 마친 후 설렘과 떨림을 가득 안고 잠에 들었다. 1월 6일 드디어 베트남 희망마을 고아원에서의 봉사 첫 날. 아이들에게는 처음보는 이방인일테도 먼저 다가와 웃어주는 아이들 덕에 긴장이 조금이나마 풀렸다. 우리의 첫 프로그램 아이스브레이킹 활동 이후, 모든 단원들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 짓기도 했지만 시행착오가 많아 지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저학년 내에서, 또 고학년 내에서 학생들의 수준이 많이 차이나 우리가 준비했던 프로그램 중 몇 개를 수정해야만 했다. 사전에 아이들의 연령과 수준에 대해 자세히 공지 받지 못했던 터라 단원들 모두 당황스러워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공지가 있었다면 더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매일 밤 숙소에서 단원들과 당일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과 다음 날 진행될 프로그램 주의사항을 의논하며 점점 매끄러운 수업 진행이 이루어지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기 시작했다.

봉사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느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이 들어오고, 아이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더불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봉사단에 들어온 나의 마음가짐과 시혜적 태도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해 더 신경 써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희망마을 고아원에서의 마지막 노력봉사 때 고아원에 꽃을 심고, 깨끗이 청소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었던 거 같다. 단원들 모두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 아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걱정했던 터라, 모두 즐겁게 봉사에 참여하고 만족했다. 노력봉사를 마지막으로 희망마을 고아원에서의 봉사는 이렇게 끝이 났다.

2019 베트남 희망마을 고아원 봉사는 나의 대학생활에서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시간이다. 봉사활동에 대한, 또 장애아동에 대한 생각에 많은 변화를 준 시간이다. 봉사활동에서 '나'보다 '남'을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으며, 즐거움, 슬픔, 기쁨 등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준 따뜻한 시간이었다. 우리를 반겨주고, 배웅해주던 아이들의 모습. 수업시간에

해맑게 웃으며 활동하던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이 대가없이 준 사랑과 고운 마음이 전해준 감동은 평생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 같다.

마지막으로 희망마을 고아원에서 10일간의 시간을 함께 보낸 우리 이화봉사단 단원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9명의 단원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부담감과 책임감 때문에 힘들었을텐데 묵묵히 일해준 우리 지현언니. 또 기록팀, 물품팀 팀장으로서 파견 전후로 너무나도 고생해준 세희언니, 지원언니. 정 많고 나에게 큰 배움을 준 승아언니. 프로그램 기획에 많은 힘을 준 유정언니, 지은언니. 문화교류 시간에 나의 에너지이저였던 경은언니, 규연언니. 운동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춤도 잘 추는 만능 엔터테이너 현지언니. 10일간 함께한 귀여운 룸메 서영언니. 2020년, 23살의 시작을 함께한 소중한 나의 친구들 벨, 민주, 지영, 효은이! 마지막으로 귀엽고 똑 부러지는 동생들 수연이, 민지, 예지, 현주, 그리고 가주! 이 단원들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이화봉사단. 여러분과 함께여서 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고생했고,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이화봉사단을 인솔하느라 고생하신 최성희 교수님, 계은영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희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는지가 한 사람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운이 한 사람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점점 더 운의 영향이 커지는 시대에서 조금이나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특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면서 아동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러한 꿈을 갖고 국내의 다양한 현장에서 아동들을 만나왔지만, 해외의 아동들은 만나본 적이 없어 처음으로 해외 현장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화봉사단 베트남 교육봉사에 지원하게 되었다.

좋은 뜻에서 시작한 활동이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아이들의 수화 수준, 베트남어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계속해서 교안을 수정해야 했다. 심지어 베트남에 가서 직접 아이들을 만나고 난 후에는 거의 모든 수업의 교안을 수정해야만 했다. 교안을 수정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급박하게 교안을 수정하다보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기보다 수업 시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남는 시간을 만들거나 그림 그리기 활동으로 채우게 되었고, 점점 우리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런 고민을 혼자서만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하지만 다른 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단원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일 밤 단원들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이야기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결과물은 우리가 느낀 필요성으로 노력 봉사에서 청소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노력 봉사에는 화단 가꾸기만 계획되어 있었는데, 고아원에서 지내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해 교실 청소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다같이 청소를 하고 올 수 있었다. 혼자서만 고민했다면 고민으로만 그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가 고아원에 와서 아이들을 만났다. 평소에도 아이들은 수 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 또한 다른 단체들처럼 아이들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라는 것이 미안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화봉사단이 계속해서 이 고아원에 오게 된다면 좀 더 연속성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연속성을 갖기 위해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만을 갖기 보다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다른 단원들과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고 함께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매일 밤 함께 고민을 나눠준 단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김*정

학교에 입학 후 1학년 여름방학 몽골로 해외봉사를 떠났다. 그 때를 떠올려보면 나는 해외봉사에 대한 막연한 로망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최대한 많이 베풀고 와야지 한다는 생각 하나로 몽골에 갔었다. 이렇게 미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떠난 몽골에서 나는 정말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반성은 또한 나로 하여금 아이들 앞에서 많은 눈물을 보이게 했다. 몽골에서의 해외봉사를 떠올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중심이었던 것 같다. 아이들 대신 설거지를 해주겠다면서 물이 소중한 몽골에서 내가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설거지를 하던 것, 설탕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른 채 아이에게 사탕을 준 것, 마지막으로 아이들 앞에서 펄펄 울었던 것. 지금 그 때를 떠올려보면 이러한 내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한국에 돌아와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내가 과거에 해외봉사를 가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어리숙한 행동들을 했었는지 정말 잘 알 수 있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봉사였던 것일까?' 하는 고민도 품게 되었다. 몽골에서 돌아오고 2년이 지난 후 나는 다시 이화봉사단에 지원하게 되었다. 다시는 2년 전 몽골에서 했었던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였고, 그 때 내가 만났던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직면하면서 이번에 만나게 될 아이들에게는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랑을 주겠다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나의 진심이 통했는지 이화봉사단이 되어 정말 아이들을 만나러 베트남으로 떠날 수 있었다.

베트남에 도착하고 수업 첫 날, 나를 포함한 우리는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현지 상황이 우리의 예상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날부터 밤마다 다음날 수업을 새롭게 기획하고 또 학생들의 수준과 현지 상황에 맞게 교안을 수정하였다. 오전, 오후 수업 후 저녁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오면 씻고 그 날 수업 피드백, 다음날 수업 준비를 마치면 잘 시간이 되었고, 이 루틴이 반복 되다 보니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새 마지막 날이 되었다. 마지막 날 이번에는 아이들과 웃으며 작별할 수 있었다. 2년 간 내가 많이 변화했음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깨달았다.

우리가 갔던 희망 마을 고아원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화가 쓰여있고, 한국과 베트남 국기가 그려진 벽화이다. 그 벽화를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이, 그리고 아이들과의 만남이 정말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아이들과 웃으며 작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화봉사단은 아이들과 매 학기 만남을 이어갈 것이다. 아이들도 우리를 그렇게 계속 좋은 기억으로 떠올려주었으면 한다. 이번 해외봉사에서는 베트남에 가는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품고 있었던 질문들에 대한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화봉사단 스무 명의 동기들이 각자의 고민, 각자의 해답들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고 이 사실만으로 이 활동의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한다. 각자가 느낀 바를 품고 한국에 돌아와,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한다.

 노*

이화봉사단 해외 봉사처에 처음 신청할 때, 봉사를 통해서 해외의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사랑을 주고 오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쌓고 싶다는 욕심이 더 컸던 것 같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현지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개인적인 욕심으로 봉사활동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봉사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 깨닫는 것이 더 많은 일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다.

실제 봉사보다 준비 기간이 훨씬 더 길고 고단했다. 한 학기 내내 셀 수 없이 많은 수업 시연과 피드백을 거쳤고, 시험기간과 방학에도 예외 없이 모여 회의하고 물품을 준비하고 교안을 작성했다. 시험 기간에도 봉사를 위한 ppt를 만들면서 가끔은 내가 왜 신청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봉사단원들과 더 친해져서 의지하며 열심히 임했고, 모두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봉사단원 선배, 동기, 후배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팀워크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다.

봉사를 하며 어느정도 계획한 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뿌듯함도 느꼈지만 그만큼 아쉬운 점도 많았다. 기존에 전해들은 것과 아이들의 수준이 많이 달라서 준비해 간 수업을 현지에서 많이 수정해야했다. 현지 사정을 보다 잘 알고 있었더라면 아이들의 수준에도 더 맞고, 보다 실용적인 수업을 준비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아이들에게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여러가지 아쉬움도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노력을 했고 수업을 무사히 하고 올 수 있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교사가 되기를 꿈꾸고 사범대에 입학했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가지 고민을 했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생겼고, 교사가 내 길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도 했다.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을 하며 교직에 보다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많이 경험하고 공부하며 세상에 대해 배우고 또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두 이끌어준 리더 지현언니, 우리 기록팀 팀장님 세희언니, 카리스마 넘치는 물품팀 팀장님 지원언니, 항상 적극적인 기획팀 팀장님 지영이, 귀여운 만언니 지은언니, 다섯살 규연언니, 길쭉한 현지언니, 마음이 따뜻한 승아언니, 룸메 경은언니, 친절한 서영언니, 잘 웃는 유정언니, 뭐든 잘하는 민주, 똑부러진 수연이, ppt 잘 만드는 세한이, 춤 잘추는 민지, 막내 같은 현주, 만언니 같은 막내 가수, 성격 둥글둥글한 예지, 반전매력 효은이까지, 이화봉사단 단원들 정말 고생 많았고 모두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 그리고 준비 과정부터 현지에서까지 함께 고생 많이 하신 사회봉사팀 계은영 선생님, 함께 동행한 사랑발 직원분들, 교수님,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박*주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학생들은 봉사를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봉사는 그저 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제 나는 그 누구도 봉사를 강요하지 않는 대학생이 되었다. 누군가 나에게 봉사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대답은 진심에서 나온 진실된 대답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나를 뒤덮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봉사는 무엇인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 이르게 했다. 작년 여름 이화국내봉사단 역시 이력에 남기려는 동기로 지원했지만 그 경험은 그동안의 봉사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반성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수동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능동적인 봉사자로서 활동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경험을 전환점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나의 태도 또한 바뀌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 베트남 이화봉사단 모집공고를 발견하게 되었다. 과거에 해외봉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했던 부끄러운 경험을 만회함과 동시에 봉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다.

나는 봉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싶었기에 기획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전에 국내 봉사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쉽지 않은 일임을 각오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겨운 일이었다. 봉사활동에 대한 전체 주제와 일정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국내봉사와 달리, 해외봉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기획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백지였던 상황이었다. 또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라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토대를 잡기 위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수업은 무엇인지, 우리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주고 싶은지를 위주로 매일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우리 기획팀은 '행복 저금통'이라는 테마를 잡았다. 아이들과 봉사기간 동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음악, 수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세부 프로그램을 한 사람당 2-3개를 담당하여 구체화시키기로 역할을 분담했는데, 모든 팀들이 완성도 높은 교안을 만들어서 순조로운 팀플을 하는 기분도 들었다. 그러나 베트남어를 읽을 수 있는 아이가 거의 없고,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전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실 현지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하지만 봉사가 다 끝난 지금 돌아보면, 한국에서 계속해서 추가되는 피드백에 대해 수정했던 경험들이 베트남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를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한다. 베트남 희망고아원의 아이들이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도 연령 차이가 심했다.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눠서 프로그램을 다르게 준비해갔지만 분명 따분하게 느끼는 아이도, 너무 어렵게 느끼는 아이도 있었을 것이기에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정말 고맙게도 우리가 준비해 간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주었고 한 번도 지루하다는 티조차 내지 않아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를 더 많이 배려해주고 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봉사가 다 끝난 후, 면접 날에 계은영 선생님께서 "이 봉사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질문하셨을 때 내가 했던 답이 떠올랐다. 비장애인이 주류인 세상에서 나는 장애를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 불편함 없이 사는 것이 기본값인 나는, 무의식적으로 장

애를 가진 분들을 지우고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생각해보면서 궁극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었다.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 수 있었다. 처음 만남 때, 아이들이 나를 때리는 것이 혹시 나를 미워하기 때문은 아닌지 걱정했었다. 하지만 함께 지내며 미워하기 때문에 세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알려줄 것이 있어서, 지금 바로 자신을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내 표정이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것도 인식할 수 있었다.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더 많이 신경을 써줄 수도 있었다. 지금 누군가 나에게 '봉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나는 바로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우위의 위치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나도 그들에게서 배움을 얻기 때문이다. 10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평소 놓치고 살아간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봉사단원으로 뽑아 주시고 베트남의 모든 일정을 관리해주신 계은영 선생님, 항상 따스한 미소로 함께해 주신 최성희 교수님, 그리고 현지에서 많은 도움주신 함께하는 사랑밭 선생님 모두 정말 감사했습니다. 리더 지현언니, 기획팀 팀장 지영언니, 기록팀 팀장 세희언니, 물품팀 팀장 지원언니, 같은 기획팀이었던 승아언니, 유정언니, 민주언니, 예지, 태권무로 같이 땀 흘린 지은언니, 서영언니, 수연이, 같이 수업 진행한 2팀 규연언니, 세한언니, 벨언니, 현지언니, 효은언니, 항상 밝은 웃음 준 민지, 경은언니, 막내 가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작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백지에 함께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어서 행복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손*지

대학생 때 한번쯤은 해외봉사를 가야한다고 생각했었다. 버킷리스트 같은 것이었다. 그러던 중 베트남 이화봉사단 공지가 올라왔다. 저런 이유를 덧붙이더라도 사실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해외봉사'이기 때문이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싶었다.

우리는 희망마을 고아원에 가서 교육 봉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해봤지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모든 것이 어렵고 서툴렀던 것 같다.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초심을 잃고 후회한 적도 많았다. 당장 내일의 미래가 막막했고 아이들과 만날 미래는 더 까마득했다. 우여곡절 끝에 베트남으로 출국해서 처음 도착했을 때 느낀 감정은 '이제야 여길 오게 됐구나.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첫 하루 이들은 적응하느라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갔던 것 같다. 낯선 환경, 낯선 음식, 준비했던 교안과는 달랐던 아이들의 상태까지 적응할 게 많았다. 무언가를 느낄 새도 없을 만큼 여유가 없다고 느꼈던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나며 점점 나를 따르는 아이들이 생기고, 내 한국 이름을 외워주는 아이들이 생기고, 나도 베트남 수화를 알아가며 아이들과 감정을 나눌 수 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부담, 걱정보다는 편안함, 행복이 내가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이 되어있었다. 아이들과 수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행복했다. 특히 희망마을은 점심시간이 정말 길었는데 시간이 남고도 남아서 그 시간이 되면 마음의 여유도 찾고 학교의 풍경도 눈에 담고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도 우리가 준비해온 수업에 열중하는 아이들이 사랑스러웠다. 오기 전에는 이 순간들이 힘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겪어보니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을 힘든 순간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점점 아이들과 내일을 기약하기 시작했다. 내일도 여기 오는지, 어디서 수업하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면 내일 얘기하자고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내일을 함께할 수 없었다. 나에게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준 아이들이 처음이었고, 이 순간들이 평생을 갈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처음엔 '아이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있던 짧은 시간에도 많은 단체가 왔다 가는 것을 보며 우리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에게는 마음을 주었다가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다. '내 소중한 경험을 만들자고 여기 온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가볍게 시작했지만 떠날 때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그리고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우리 봉사단이 장애로 인한 벽이나 편견없이 교감하고 소통하며, 장애를 야채를 싫어하는 것과 같이 그저 그 사람이 가진 수 많은 특징 중 하나로 여기며 서로가 자유롭게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았다.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 나도 그것을 잊을 때가 많았는데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더 적지 못한 깨달음이 많지만 이렇게 10일 동안 많은 것을 깨닫고 꿈을 꾸다 온 것 같이 행복했다. 부족했지만 이화봉사단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신*주

내가 처음 '이화봉사단'이라는 이름을 접한 것은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언니들을 통해서였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고 한 학기를 보내면서 고등학교와는 또 다른 생활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쳤었는지 첫 여름 방학을 아무런 계획이나 성과 없이 보내고 난 후 2학기가 시작되자, 나 자신의 게으름에 많은 실망을 했었다. 겨울 방학 때는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며 2학기를 보내고 있던 중 같은 과 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겨울 방학 계획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다. 언니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화봉사단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에게 이화봉사단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를 격려해주었다. 이화봉사단에 지원하면서도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자기 개발을 위해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등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다. 겨울 이화봉사단에 최종 합격을 한 후 OT에 참여할 때에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겨울 방학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면서 점점 변화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화봉사단은 그저 내가 호기심으로 지원해서 대충 준비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베트남 고아원의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테마를 정하고 수업을 기획하고 교안을 작성하고 물품을 제작하는 등의 모든 일을 직접 해야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 참여하는 대내 활동이었고, 봉사단 안에서 막내 역할을 맡고 있었던 나는 교안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거나 아예 수업 자체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피드백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했고, 빠른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그저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없이 벗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했었다. 그러나 모든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 도와주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언니들을 보면서 나 자신이 아직까지도 얼마나 미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 점점 완성되어 가는 이화봉사단을 보면서 나 자신도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회의에서도 점차 내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언니들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며 봉사단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수업이 진행되지는 못했고 현지에 가서도 처음부터 수정한 교안들이 다시 수정되고 버려지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봉사단 전체가 하나가 되어 기울인 노력과 아이들의 웃음이었다. 완벽히 준비했지만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던 우리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열심히 참여해주고, 웃어주던 그 아이들을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겨울 이화봉사단을 통해 나는 누군가를 조건 없이 배려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베풀 배려와 사랑이 비록 성공적으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법도 배울 수 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이화봉사단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추천할 것이다.

유*영

이화봉사단에서 베트남 다낭 희망마을 고아원에서 청각장애아동 대상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을 보고 큰 포부를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다. 청각장애아동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청각 장애의 불편한 점들과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며 함께 행복을 만들어 내겠다는 다짐으로 봉사를 시작하였다.

베트남에 가기 몇 개월 전부터 준비과정이 시작되었다. 교육할 프로그램의 주제를 새롭게 기획하고, 각 프로그램 팀 별로 수업내용을 구상하고 구체화시켰다. 여러 차례에 걸친 전체회의 끝에 수업 교안과 워크북, 수업용 ppt를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수업 준비가 거의 완성된 시기에 갑자기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공연을 준비해야 한다는 공지가 있어 더 바쁘게 연습해야 했다. 새내기로 학교생활에 적응 중에 시작한 활동이라 미리 각오는 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바빴고 체력을 많이 요했다. 힘들 때마다 초심을 잃지 말자고 각오하고 미래의 더 나은 교육봉사를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였다.

희망마을 고아원에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첫 수업을 진행했을 때, 예상했던 분위기와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웠다.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 매초마다 학생들을 한 명씩 잡고 집중시켜야 했고, 한 조 안에서도 같은 설명을 학생마다 여러 번 해주어야 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 학생도 여럿 존재해서 예의주시해야 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첫날 밤 회의에서 우리는 준비한 수업내용을 모두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매일 밤 다음날 수업의 주교사들이 수업 내용과 교안, ppt를 수정하여 전체회의에서 공지하고, 보조교사들이 새로워진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수업은 완료되었지만, 현지에서 짧은 시간 안에 수업내용을 수정해야 해서 더 좋은 질의 수업을 제공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 또한 한국에서부터 미리 학생들의 수준과 현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더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끝까지 잊히지 않았다. 한국에서 봉사단원끼리 수업내용을 기획할 때보다 현지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니 보이는 것이 많았다. 야외에서 뛰어놀기 좋아하는 학생들은 운동화는 고사하고 다 뜯어진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몇몇은 맨발로 모래밭을 아무렇지 않게 걸어 다녔다. 학생들의 발은 모두 먼지로 뒤덮여서 까만 상태였고, 이물질이 밟아 발에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나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런 상황을 보고 학생들에게 신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신발 만드는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야외 수업 중 갑자기 희망마을 고아원 식당 옆에서 쓰레기 소각을 진행해 공기가 온통 뿌옇게 변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뿌연 연기 속에서도 뛰어노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를 보고 쓰레기 소각 연기의 나쁜 점을 알리고 학생들이 제한된 환경 내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고안하여 수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베트남 해외봉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느꼈다. 그동안 나에게 당연했던 생활환경과 위생, 교육이 현지 학생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아마 희망마을 고아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번 베트남 해외봉사는 내 꿈과 목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위를 살피는 자세를 가지고 삶의 방향성을 재정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아

2018년, 대외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문화교육·문화교류 봉사를 다녀왔었다. 그때 다른 나라 친구들과 즐겁게 노래했던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이화봉사단 베트남 교육봉사에도 지원을 하게 되었다. 2년 전처럼 마냥 재밌을 줄만 알았는데, 3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은 물론 현지에서 마저도 무척이나 힘들었다.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또 그런 '사람'에게 위로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짜증 나기도 했다. 또, "열심히 짠 교육안을 잘 실현해서 멋진 추억을 가져와야지"하는 그저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오만하고 우매한 생각이, 현지에 가니 죄책감이 되어서 마음을 짓눌렀다.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겐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얻고자 했던 건 추억일지 몰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추억이 아니었다.

현실을 깨닫고 나니 눈물 나게 미안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하고 싶지 않아서 온 마음과 체력을 다 써가며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기 때문이었다. 진심은 조금이나마 통하는지 내 앞에서 말도 잘 하지 않던 친구는 노래를 흥얼거리 주었고, 어떤 친구는 바디퍼커션 수업 후에 쉬는 시간마다 찾아와서 동작을 외웠 다면서 보여주었다. 그들에게겐 그저 스쳐 지나갈 사람일 텐데, 그럼에도 내가 지도하는 바디 퍼커션 수업을 열심히 따라와 주고 내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에 울컥할 때가 많았다.

그저 이렇게 짧게만 스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과연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친구들과 밤마다 이야기했다. 소중한 경험이었지만 마냥 소중한 것으로 그치고 싶지 않았다. 감히 그렇게 간직 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좋은 봉사였지만 다른 결의 '좋은' 순간이었다. 사실 10일 전과 달리 지금의 내가 느끼는 감정의 동요가 너무 커서 아무 것도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고작 10일 동안에 아이들이 나의 마음가짐을 변화시켰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나의 가치관을 바꾼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나아갈 것이고, 그들과 위해 또 그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

혹시 봉사를 가기 전에 기회가 되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단순히 가벼운 마음만으로 출국을 준비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 또한 후회하지 않도록 모든 사랑을 내어주고, 그에 대한 감동을 마음껏 받아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만일 봉사가 끝나고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수고 많았다고 위로의 악수를 청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힘이 되어준 리더 지현이와 6층 룸메들, 고생한 단원들에게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다.

 이*영

교육봉사를 종종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던 나는 이화에 와서도 이화봉사단 국내봉사를 참여했다. 대학에 와서 하는 봉사는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경험임을 느꼈다. 또한 국내봉사에서 아이들과 점차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인상깊게 느껴 해외봉사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드디어 해외봉사를 가게 되었다. 국제협력이나 국제보건에 관심이 많고, 추후 전공을 살려 이와 관련한 일을 하고 싶었기에 해외봉사에서 경험할 것들에 큰 기대를 가지고 지원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OT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화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는 '설레고 즐겁고 재미있는 해외봉사'라기 보다는 '감동과 울림이 있는 해외봉사'였다. OT에서 지난 봉사활동의 모습을 볼때만 해도 아이들과 이화봉사단원들이 웃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였는데, 직접 겪고 나니 그 이면에 또 다른 경험과 깨달음이 있었다.

해외봉사를 가서 말도 통하지 않고, 청각장애에 대한 지식도 없는 내가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나의 걱정을 예상하고 있는 듯 나의 몸 동작을 이해하려고 집중해주고 수화를 알려주기도 했다. 지원동기를 생각해보면 나의 경험을 위해, 추억을 위해 떠난 해외봉사였다. 표면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봉사활동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교육이 그저 스쳐지나가는 봉사단체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외에도 다른 단체가 와서 과자를 주고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사진을 찍고 가는 모습에 왠지 모를 불쾌감이 들었다. 그리고 반성했다. 누구를 위한 봉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또한, 봉사활동이나 NGO단체의 활동을 다시 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활동으로 인해 대상자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 심오한 부분까지 고민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

2019년의 연말과 2020년의 시작을 함께한 이화봉사단. 다함께 고생하면서 20명 모두가 좋은 인연이 되었다. '20명이 한 팀이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모두가 어우러져 하나로 뭉쳐 활동했다. 준비부터 봉사를 할 때와 한 후까지 신경 써야하는 부분이 매우 많았고, 놓쳤던 부분도 꽤 있어서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20명 모두가 서로 보완해주고 협력하여 봉사에서 배움이 더 많았던 활동이었다. 봉사활동을 했다는 뿌듯함보다는 부족한 나를 따라와준 아이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느낌이 더 컸고 단원 모두가 이와 비슷한 느낌을 가졌다고 했다. 이화였기에 고민할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던 느낌이라고 생각하며, 매순간이 감사한 활동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지

나의 작은 노력과 행동이 지구 반대편 이웃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해외 봉사의 가장 큰 매력일 것이다. 처음에는 단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화봉사단에 지원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버거웠다. 기획한 프로그램을 몇차례 수정하면서도 과연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현지에 도착해보니,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수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서 아쉬웠다. 현지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수업을 기획할 수 있었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열정적으로 따라와줬다.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이들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통한다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수 많은 단체 중 하나이겠지만, 우리의 진심과 노력이 조금이나마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봉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부족한 점을 느낀 수 있었으며 봉사에 대한 나의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6일에 지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다. 앞으로 또 다른 봉사활동 등과 연결하여, 장기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올해 첫 시작을 나의 버킷리스트였던 해외 봉사로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봉사 단원 개개인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혼자서는 해내지 못했을 일들을 단원들 덕분에 해냈다고 생각한다. 같이 고생한 모든 단원들에게 고마웠다고 다시 한번 전하고 싶다.

 임*은

이번 이화봉사단의 베트남 해외봉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다소 가벼운 마음이었다. 해외봉사를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지 하는 마음과 봉사를 평소 좋아하기는 하였으나 자기계발의 의미로써 이번 봉사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벼운 마음과는 달리 학기 중부터 봉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 학기 중에 수업프로그램과 세부교안까지 다 짜고 출국 2주전 방학 동안에는 갑작스럽게 생긴 꺼뚜족과의 문화교류 준비로 합창과 k-pop댄스를 준비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교안을 피드백 받고 수정했으며 수업물품준비 등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반부터 오후 9시 또는 그 넘어서까지 남았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어느 한 팀이 일이 많으면 도와주고 서로 자발적으로 할 일이 없는지 물어보면서 일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었고 서로간에 정도 많이 쌓였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끝에 드디어 베트남 출국날이 다가왔고 설렘반, 걱정반으로 베트남에 도착했다. 그렇게 처음 희망마을 고아원과 마주하게 된 첫 날은 혼돈 그 자체였다. 고학년은 13~20세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였고 그에 따라 다소 수업이 쉽게 느껴질 것 같은 학생들도 있었다. 출국 전 피드백에는 난이도를 낮추라는 피드백이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낮춘 상태였는데 고학년학생들 일부에게는 지루한 프로그램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 혼란스러웠던 것은 저학년 학생들이었다.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다. 활동을 직접 아이들이 할 때는 괜찮았는데 말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절대 보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이도 어릴뿐더러 수업 집중도 전혀 안되고 싸우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첫날의 수업 이후 우리는 마지막 수업까지 교안을 대폭 고쳤다. 그러면서 밤마다 회의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의미 있는 것을 주고 갈 수 있을까'보다는 '아이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면 들을까, 그리고 남는 시간은 어떻게 보낼까'와 같은 수업자체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그래서 활동이 끝난 이 시점에서는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것, 우리가 봉사하러 왔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아이들과 소통했다는 사실이 가장 아쉬웠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다가왔다. 잘 따르는 선생님에게 안기고 먹을 것도 주고 점심시간에는 우리가 있는 공간으로 계속 와서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였다. 정말 천사들이 따로 없었다. 처음에는 청각장애인에다가 베트남어까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여서 소통이 어려웠다. 그러나 차츰 경험을 통해 베트남 수화를 조금씩 익혀나가고 일부 베트남어를 알아들으면서 아이들과 소통이 보다 수월해 졌다. 그러나 이렇게 정도 많이 들고 소통도 수월해 질 때쯤 우리는 헤어져야 했다. 우리 단원들은 대부분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에 울었다. 그러나 베트남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우리를 덤덤하게 보내주었다. 아이들은 이렇게 수많은 우리와 같은 봉사자들을 맞이하고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헤어짐에 덤덤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헤어짐에 익숙한 아이들의 덤덤한 모습이 안타까워서 또다시 눈물이 났다.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봉사자로 아이들 마음속에 잊혀질 지 모르나 우리의 가슴속에는 아이들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참 아이러니 하다. 우리가 봉사자로서 봉사를 하러 갔는데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의 추억 속에 아이들이 영원히 기억되니 말이다. 이 점에서 봉사의 본질이란 무엇일지, 그리고 이 봉사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장*은

우연히 보게 된 선발 공고가 자꾸만 아른거려서, 경력도 정보도 없이 무모하게 지원했던 겨울 이화 봉사단의 모든 일정이 끝난 지금에서야 되돌아보니, 매 순간들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면접을 보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하던 날과 매주 월요일 아침에 모여 회의하던 날들, 그리고 발대식을 하고 출국 전 마지막 준비를 하던 날까지 이 긴 여정을 아무 탈 없이 함께해준 단원들과, 그럴 수 있게 이끌어준 리더 덕분에 더욱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듯하다.

물론 모든 게 다 아름답고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고,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획하고 준비했던 수업들이, 현지에 가 보니 예상과 너무 달라서 교안의 대부분을 수정해야 했던 일이라든지 그렇게 공들여 준비한 수업이 과연 아이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고민하게 됐던 일 등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직접적인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교육과 봉사라는 것에 대해 또 다른 시각으로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나름의 결론을 얻기도 했다. 만약 이 고민을 혼자만 했었다면 언제나처럼 우울함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겠지만,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단원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든든했다.

이화 봉사단과 함께한 일정들이 어떤 아이에겐 잊지 못할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에겐 그저 스쳐가는 날들 중 하나로 기억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기억하게 되든 먼 훗날 2020년을 떠올렸을 때 적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날로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화 봉사단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었을 우리 20명의 단원들

지원, 예지, 효은, 현주, 민지, 민주, 가주, 승아, 규연, 지영, 유정, 지은 언니와 맡은 일은 많았지만 그만큼 정도 많이 든 우리 기록팀 세희, 벨, 세한, 수연, 현지, 서영이 그리고 앞에서는 끌어주고 뒤에서는 밀어준 완벽한 우리 리더 지현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고생 많았고,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어디서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다들 고맙고 사랑해♡

정*원

베트남 해외봉사를 다녀오고 이렇게 개인 소감문을 쓰게 되다니 우선 감회가 새롭다. 졸업하기 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4학년이 되어서야 해외봉사를 다녀온 것이 아쉬울 정도로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다는 말을 하고싶다. 아마 이화에서의 4년간의 대학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사실 이번에만 해외봉사를 지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3학년때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해외봉사 모집 공고를 보고 호기롭게 지원을 했었지만 서류에서부터 탈락하고 말았다. 아마 그 당시 적어서 냈던 지원동기는 떨어질 이유가 충분했을 것이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진심인 것처럼 보이는 열정과 뻔하디 뻔한 내용들만 적어냈으니 말이다. 그렇게 광탈의 경험을 맛보고 느낀 것이 있기에, 이번 해외봉사를 신청했을 때의 마음가짐은 확실히 달랐다. 한번은 떨어졌지만 두 번은 떨어지기 싫었던 것 같다. 정말 간절히 붙고 싶은 열정과 내가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싶다는 진심을 거짓없이 보여주니 서류는 물론 면접에서도 통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합격 발표만 기다리던 날 합격자 명단에 있는 내 이름을 보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결과가 나자마자 동기와 부모님에게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해외봉사를, 그것도 우리학교의 이름을 걸고 가게 되다니! 설렘을 잔뜩 가지고 정말 열심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물품팀 팀장이라는 직책도 맡으며 장정 3개월간의 준비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준비기간동안 힘들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학기 중에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 8시에 회의를 하고, 시험기간 및 여러 일정과 겹치는 상황에서 해야할 일이 계속 해서 생겨나고, 교안은 짜면 짤 수록 수정해야할 부분만 늘어났다. 심지어 수업 자체를 갈아엎어야하는 상황도 생겨났다. 정말 말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힘으로 기획하고 꾸려나가야 했다.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분이었다. 교안짜기, 시연준비, 수업준비물 만들기, 물품준비 및 패키징, 공연준비 등등 베트남 가기 직전 2주는 그냥 학교에서 살다시피 했다. 더군다나 베트남 현지에서도 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수업 전날에도 숙소에서 수업자료를 다시 만들어야하는 상황도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외봉사단을 갈 것이냐 물으면 백번 주저하지 않고 당연히 갈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화봉사단이 아니었으면 못 만났을 여러 과의 멋진 벗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됨에 감사하고, 희망고아원 아이들에게 되려 가르침을 배우면서 느끼는 감정들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에 행운이었고, 나 자신에게도 많은 반성을 하고 겸손을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음에 행복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버스로 돌아가는 데 같이 따라와서 배웅해주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버스가 떠날 때까지 손 흔들어 주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올 걸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과 표정, 살결을 통해 느껴지는 아이들의 진심은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감동이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정*은

이화봉사단을 합격하여 OT때 가진 부푼 기대감과 달리 바로 진행된 수업 준비와 교안 작성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중간고사를 마친 후부터 시작된 봉사단 일정은 학기 중에 매주 할 거리가 생겨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기간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힘든 일이고, 쉽지 않다고 느끼는 기간으로 가득 찼었다. 이번 기수는 특히나 학기 중에 수업 자료인 ppt와 교안 작성을 모두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학기가 끝난 후까지 끊임없이 진행되는 수업 내용의 번복과 ppt 및 교안 수정으로 인해 학기를 바쁘게 보낸 것치고는 그렇다 할 성과를 느끼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특히, 끝나지 않는 수업 내용 및 교안 수정은 베트남 희망 고아원 학생들의 수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해당 학교의 학생들 중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화를 할 수 있는지, 평소에 배우는 수업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수업 준비는 결과적으로 봉사단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시간 낭비로 이어졌다. 공들여 준비한 수업내용이 교안 작성의 막바지에 아이들의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렵다는 추상적인 피드백과 함께 대부분이 날라갔다. 하지만, 막상 베트남 현지에서 가서 수업을 진행해보니 우리에게 필요한 피드백은 어려우니 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한 반에 함께 있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단계별로 성취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인 베트남 현지 기본 생활은 우리가 누리는 환경과는 매우 상이하여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누리는 깨끗한 환경과 쓰레기 분리배출 등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수업 기획 이전에 전체적으로 교육이나 공지가 있었다라면 해당 환경에 보다 적합한 수업 기획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우리 기수가 다른 기수들보다 학기 중부터 많은 시간을 들인 것에 비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적합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 커 봉사단 내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꽤나 빈번했고, 현지생활에 조금 적응하면서부터는 봉사단원들과 수업내용을 채우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래도 "Better Than Nothing"이라는 최성희 교수님의 말씀이 아쉬운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었다. 우리는 수업을 통해 많은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는 없었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교육과 잘 갖춰진 환경을 보급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잊고 살았던 인생 목표를 한 번 더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해당 학교에 우리가 가진 지식과 사랑을 배풀고자 갔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받는 것이 더 많은 봉사였다. 누군가가 이화봉사단의 해외교육봉사 신청에 고민을 한다면 주저없이 추천하고 싶고, 우리 기수가 가서 느낀 점을 비롯하여 아이들의 수준 등을 잘 정리하여 다음 기수들은 체계적으로 보다 적합한 수업내용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최*현

이화봉사단으로서 봉사에 임하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봉사와 많이 달랐다. 그저 기계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 안에서 활동에 임하는 것이 아닌, 주체적으로 여러 팀원들과 함께 밤낮 고민하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활동에 임했다. 총 20명의 팀원들과 함께 3달여간 무엇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최선을 향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드백을 통한 수십 번의 교안 수정 및 시연 준비가 지치고 괴롭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다 더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해줄 수 있었고, 아이들이 학습된 내용을 이해하고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예로 국기를 배우는 수업을 통해 그 다음날 다른 수업의 활동에서 국기를 그려 넣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적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이는 지친 우리를 다시 힘 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더 나아가 이는 봉사활동에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게 이화봉사단은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과거의 나는 그저 기계적이고 의무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껏 여러 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이화봉사단에 임하기 전의 나는 결코 진정한 봉사를 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과거의 내가 봉사에 임했던 마음가짐은 그저 대학교 진학을 위한, 취업을 위한 그저 보여주기식의 봉사였음을 이화봉사단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비록 봉사하는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했을지 몰라도, 봉사 전의 마음가짐이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봉사를 하지 않았음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더 나아가 이화봉사단은 그저 '합격'이라는 결과만을 보고 일차원적으로 해외봉사를 간다고 신났던 과거의 부끄러운 나를 돌이켜 볼 수 있게 만들었으며, 그저 '좋은 추억', '좋은 경험'을 만들고자 했던 과거의 이기적인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누군가가 이화봉사단을 할지 말지 고민한다면 무조건 해야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화봉사단의 단원으로서 준비과정부터 실제 봉사까지, 활동에 임하지 않았더라면 깨달을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첫째로 기존의 자신의 잘못된 봉사 자세를 뒤돌아 보고 반성할 수 있다. 둘째로 다양한 사고를 가진 팀원들을 만나고 생각을 나눔으로써, 과거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현지에 가서 매일 밤 봉사가 끝난 후 밤마다 팀원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과 고민들은 봉사가 완전히 끝난 지금도 큰 울림을 준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던 그 멋지고 예쁜 모든 마음들은 너무나 새롭고 감사한 추억이 되었다.